

청소년들은 에이즈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에이즈가 1981년 처음으로 미국에서 인지된 이래 1998년 말 기준으로 감염자가 3천3백 여만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15세 미만 어린이가 백20여만 명이나 된다. 또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2백50만 여명 중에서 어린이가 50여만 명을 차지한다. 매일 7천명의 청소년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으며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에이즈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에이즈 대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에이즈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이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833명의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 학생이 1,707명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대상 중 남성이 41%를, 여성이 59%를 각각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의 각 학년별, 성별 분포는 <표1>에서 제시하였다.

설문서를 통해 에이즈의 패널전시회의 효과를 보기 위한 내용, 에이즈에 알고 있는 정도, 에이즈에 대한 지식을 얻는 루트, 이성과의 교제상황, 동성애 경험,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지식과 태도 등을 알아보았다.

<표1> 조사대상의 일반상황

학 년	인 원	성 별	
		남 인원(%)	여 인원(%)
중학교 1학년	443	177(40)	266(60)
중학교 2학년	566	161(28)	405(72)
중학교 3학년	698	295(42)	403(58)
고등학교 1학년	48	46(96)	2(4)
고등학교 2학년	78	78(100)	0(0)
계	1,833	757(41)	1,076(59)

청소년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년이 낮고 나이가 적을수록 에이즈예방 패널전시회를 통해 알게된 내용이 많고 학년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새로 알게된 내용이 적어 에이즈예방패널전시회는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서 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 대중매체를 통해 에이즈에 관해 알게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

- 패널전시회를 통해 새로 알게된 사실을 보면 에이즈의 증상(57.6%)이 가장 많았고 예방법(15.5%)이 그 뒤를 이어서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정확한 에이즈의 예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예방교육에서는 에이즈 예방법에 특히 강조가 있어야 하겠다.

- 에이즈에 대한 지식점도는 저학년에서는 "약간 알고 있다"와 "거의 아는 것이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보통정도 알고 있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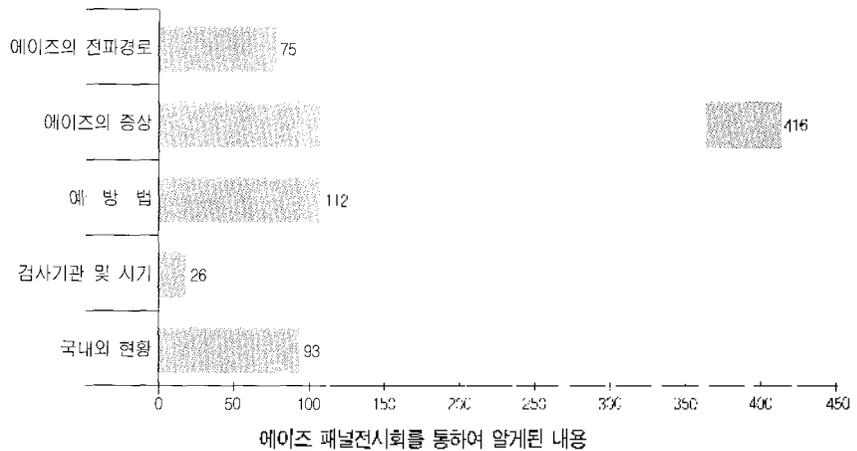
대답한 학생들이 많아 저학년 층에서는 실질적인 에이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에이즈에 관해 지식을 얻는 경로를 보면 남녀 공히 TV 나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남 46%, 여 44.7%)를 통해 얻는 비중이 압도

적으로 커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에이즈에 관해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절반이상이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는 적이 없다고 대답했고 얘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는 학생 중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 대상은 모두 "친구"(남 21%, 여 25.9%)로 나타나 선생님이나 부모보다는 친구에게서 정보를 얻는 비중이 더 큼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 동료교육(peer education)이 실시된다면 교육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성교를 가진 후 에이즈에 감염될까 걱정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다가 남 58.3%, 여 50.4%로 대부분 에이즈를 심각하게 생각하



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에이즈의 감염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 에이즈와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지식정도를 보면 "에이즈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벌이다" 라는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에 대한 편견이 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감염자의 격리수용문제에서는 약 35%가 '모르겠다', 에이즈감염사실에 대한 비밀보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확실히 그렇다' 보다 10% 가량 높아 감염자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성관계나 수혈, 수직감염, 주사기의 공용 등과 같은 일반적인 에이즈의 전파경로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체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모기나 곤충, 공중목욕탕의 사용, 식기공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여 감염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지는 못하였다. A

<표2> 성교 후 에이즈에 걸릴 걱정

응답	인원	성별	
		남 인원(%)	여 인원(%)
걱정했다	40	23(14)	17(12)
-무보호	18	7(37)	11(73)
-콘돔사용	11	8(42)	3(20)
-오랄섹스	5	4(21)	1(7)
걱정하지 않았다	167	98(58)	69(50)
몰랐다	98	47(28)	51(37)

안윤옥 / 서울대 의대 교수
이충민 / 서울대 의대 교수
이상은 / 본회 사업과 과장